

장휘국 시교육감, “광주가 미얀마와 함께 하겠다!” 지지 표명

5일 페이스북에 연대와 지지 표명

장휘국 광주교육감이 5일 미얀마 국민들에게 연대와 지지의 의미를 담아 SNS에 응원 메시지를 올리고, “광주가 미얀마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개인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 메시지를 통해 “미얀마 거리에서 매일 총성이 이어지고 있고, 뉴스를 통해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 찢기는 아픔을 느낀다”

며 “시민들의 평화시위에 총격을 가하는 미얀마 군인과 경찰에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일고 있지만 군부는 학살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시위 진압에 기관총까지 동원해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만 500여 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미얀마는 80년 오월 광주와 무척 닮았다. 1980년 오월, 죽음을 뻔히 알면서도 전남도청을

지켰던 광주의 시민군들과 미얀마 국민들은 같은 신념을 품고 있다”며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기꺼이 바치고 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 교육감은 미얀마 국민들에게 가족의 마음으로 연대와 지지의 뜻을 밝혔다. 그는 “5·18 민주항쟁을 겪은 광주에게 미얀마의 민중들은 가족이며, 그들이 민주화를 위해 거리에서 흘린 피는 광주의 피와 다르지 않고, 죽음을 넘어 던지는 외침 또한 광주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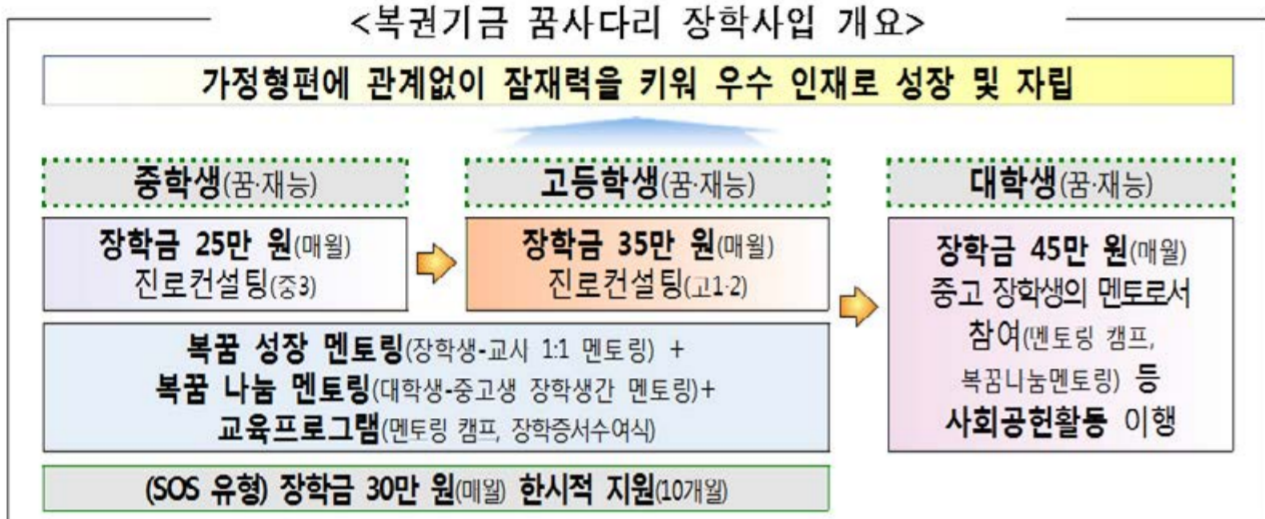
다르지 않다”며 “광주는 미얀마의 민중들에게 가족의 마음으로 연대를 표하고, 그 뜻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장 교육감은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고, 광주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며, 새벽에 뜨는 해처럼 민주주의가 미얀마의 모든 영토를 뒤덮을 것이다”며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고, 미얀마 민주시민들을 응원하며, 광주가 미얀마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장기호기자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모집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저소득층 중·고생을 선발하여,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사업으로, 학생이 가진 꿈과 재능 및 긴급구난 필요성 등에 따라, 꿈, 재능, SOS 장학금의 3가지 유형으로 운영한다.

신규 장학생은 중2~고3 학생을 대상으로 4월 5일(월)부터 30일(금)까지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심층평가 등을 거쳐 7월에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므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학교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SOS 장학생 선발 일정을 6월(1차), 9월(2차)로 앞당기고, 선발인원을 확대(50명→100명)하며, 장학금 지원 기간을 연장(8개월→10개월)하여 긴급한 위기 상황에 처한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해 나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교재 구입, 진로 탐색 등 학업 계획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장학금(매월 25~45만원, 학교급별 차등 지원)을 지원한다.

또한, 활동 기간 동안 1:1 멘토링, 멘토링 캠프, 진로·진학 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경제적 지원 외에도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들이 가정환경으로 인해 꿈을 접거나 포기하지 않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장학사업이 새로운 도전과 가능성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특히 긴급 장학금(SOS유형) 지원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한발 한발 성장해 나가는 저소득층 중·고등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유빈기자

숙련기술인 대축제, 전남 기능경기대회 5일 개막

5일간 순천·목포·여수 등 10곳서 37개 직종 337명 기량 겨뤄

전남 숙련 기술인의 대축제인 2021년 전라남도 기능경기대회가 5일부터 9일까지 순천공업고등학교, 목포공업고등학교, 여수공업고등학교 등 10개 경기장에서 펼쳐진다.

전남도가 주최하고, 전남도기능경기위원회(한국산업인력공단전남지사)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산업용 드론 제어, 그래픽디자인, 자동차 정비, 제빵, 피부미용 등 37개 직종에 337명의 선수가 참가해 기량을 겨룬다.

직종별로 금, 은, 동 입상자를 뽑는다. 입상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한 해당 직종 기능사 시험이 면제되고 오는 10월 4일부터 대전에서 열리는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전남 대표로 참가한다. 지난해 전남에서 총 98명이 출전해 전국 7위의 성적을 거뒀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참가 선수와 지도교사로 참가 인원을 제한한다. 개막식, 시상식, 경기 관람 등 주요 행사도 생략하고 실경기 위주로 시간대별 인

원을 분산 개최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중소기업과(061-286-3772)나 한국산업인력공단전남지사(061-720-8521)로 문의하면 된다.

배택휴 전남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켜 대회를 안전하게 개최하겠다”며 “우수 기능인 발굴, 기업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 등을 통해 기술인의 취업 기회가 확대되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영 기자

한전 목포지사 ‘제1회 알아보자 전기가치 공모대회’ 개최

한전 목포지사(지사장 임한우, 위원장 안조순)는 목포 내 초등학교 약 만6천명을 대상으로 제1회 알아보자 전기가치 공모대회를 개최한다.

오는 4월 10일(일) 전기의 날 제56주년을 맞이하여 현대생활에 꼭 필요한 전기에 대해 한번 생각하고 그 가치를 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1회 알아보자 전기가치 공모대회’를 열고 있다.

공모기간은 4월 12일부터 30일까지이며 대상은 목포시 내 초등학교

생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입상은 총 69명으로 총 120만원 상품권과 상장을 시상할 예정이다.

공모 주제는 전기(에너지) 또는 한전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이미지, 미래의 에너지 모습, 전기를 사용하며 관련된 기억 등 자유로운 주제로, 8절 도화지에 그림으로 표현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 참가 신청은 우편, 이메일 접수(그림을 사진으로 찍은 파일 첨부)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전 목포지사 인스타그램(kepcok_

mokpo), 또는 목포지사 고객센터(061-270-2355)로 문의하면 된다.

한전 목포지사는 이번 대회에서 총 69명을 시상, 입상작의 전시는 코로나 19 확산 예방을 위해 목포지사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는 것으로 대체 할 예정이라 밝히며, “관내 초등학교생들이 이번 대회를 통해 전기 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고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오복기자

